

paradoxical events, where the impossible union is accomplished and his resurrection is the paradox of paradoxes, in which the rejected history is deconstructed, life-giving eros springing out from the abyssful thanatos.

“Little Gidding” breaks the air with flames of fire, urging us to choose between the flames of fire and of the Holy Spirit to be saved. Starting with the Pentecostal fire, time starts to be so completely transformed that here is “England and nowhere, never and always”. The event on the mountain of transformation is the most paradoxical and transformational of events, substantiating history into myth where time and eternity are met. The voyagers must not cease to go forward until we get the transfigured vision of the place from which he started.

Key Words: Biblical poetics history myth Four Quartets incarnation faith Christianity Bible paradox

문학, 문화/02/발표논문/

## 『레 미제라블』: 문학 작품 속의 은혜와 율법

김철수 (전주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허구(fiction)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이 현실보다 더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용되는 낮은 정서와 표현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상적 정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투적인 현상 속에서 깊은 정서와 높은 이상을 잘 드러내는 소설을 “좋은 소설”(김영철, 31)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은 그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그가 아직 최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속 된다”(Bakhtin, 59)고 주장하는 바흐친(Bakhtin)의 말처럼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끊임없이 연속되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읽고 쓰는 사람들의 삶 역시 직접, 간접적으로 그 소설의 내용과 연관되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인간적인 접근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작품을 기독교라는 종교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 용이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문학작품들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한 문학 작품이나 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는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2)는 하나님의 존재명령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해야만 할 것이다.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입장은 “신과 인간의 화해와 대결을 철저히 의식하는 긍정과 부정의 심정이나 의식이 내부로 흐르면서 새로운 인간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황송문, 26) 방식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죄악이 판재한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삶을 유지하며 때로는 죄에 빠져 방황하면서 또 때로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인간의 성실한 모습이 예술적 감수성과 문학적 기법을 수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이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에 의해 1862년에 출판된 『레 미제라블 *Les Misérables*』이라 할 수 있다.

1789년 대혁명에서 시작하여 공화정과 나폴레옹의 즉위 그리고 1830년 7월 혁명에 이르는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레 미제라블』은 1840년에 시작되어 1862년에 브뤼셀과 파리에서 출판된 위고의 일생의 역작으로 “사실상 19세기의 신념, 특별히 역사에 대한 신념의 신념의 결정체”(Brombert 221-2)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프랑스의 정황과 대혁명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함께 위고가 살았던 시대의 삶과 역사에 긴밀히 맞물리면서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원형 이야기로서 19세기 프랑스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조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레 미제라블』의 두 중심인물인 장발장(Jean Valjean)과 자베르(Jabert) 경위의 삶의 궤적을 기독교의 두 가지 중심 주제인 ‘은혜’와 ‘율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추적하면서 그 두 개념이 인간

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대 주제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 그리고 이 작품 속에 내재된 인간 구원의 함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II. 은혜와 율법의 상관관계

나학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법의 구체적인 선포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인간의 본성의 자연적인 선포를 ‘자연법’이라고 하며, 인간이 인간의 사회를 위하여 만든 법을 ‘실정법’이라고 부른다”(나학진, 179)고 정의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의로움의 궁극적 가치 기준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이 주어지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들을 벌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은 역사의 종말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날이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신약에서 공관복음 곳곳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의와 더불어 27권의 신약성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울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발견된다. 그것은 간음 중에 잡혀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부모를 떠나 방탕한 아들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아야 할 도둑도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후 용서를 받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출 21: 24)라는 율법 상의 보복의 개념이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우라”(롬 12: 20)라고 함으로써 정죄를 강조하는 율법으로부터 용서를 강조하는 은혜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은혜란 가장 천한 죄인을 하늘나라의 지극히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그것은 그 죄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엡 2:8)인 것이다.

율법과 은혜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의식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대한 비평적 해답으로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고 보존되는 것이며, 율법은 오히려 “범법함으로써 더하여진 것”(갈 3: 19)이므로 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단죄와 지주의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해 선포된 시내산의 율법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에 의존하고 있다.<sup>118)</sup>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언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갈 3: 16-8)

월터(C. F. W. Walter)는 “신구약 성경의 교리적 내용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교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율법과 복음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일은 모든 크리스천들

118) 이선자(2002), “뤼벤펜트 작품에 나타나는 정의와 은혜,”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제 11호, pp. 341-364 참조.

과 특히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며 세련을 요하는 예술이며, 이 과정은 오직 성령에 의하여 직접 체험을 거쳐서 습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Walter, 22-23)

본 논문에서 인간의 궁극적 구원과 관련된 주제인 ‘은혜’와 ‘율법’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의 역할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치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갇혀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추구하다가 자가당착으로 자멸하는 자베르 경위와 애절한 회개의 심령으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세리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구제하며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장발장의 삶의 궤적을 비추는 알레고리로서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레 미제라블』 : 은혜와 율법의 변증법

### 1. 미리엘(Myriel) 주교: 기원으로서의 은혜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온다. 한 사람은 금식과 헌금 등의 율법을 잘 지키며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는 세리이다. 각각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 작품의 두 중심인물인 자베르 경위와 장발장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다.

신학적 개념으로서의 ‘율법’의 근거와 기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처럼, 이 작품은 그러한 ‘기원으로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한 의로운 성직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작품의 구조 상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하는 미리엘 주교에 대한 이야기는 “올바른 사람(An Upright Man)”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 은혜를 통해 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 주제로 함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1815년, 샤를르 프랑스와 비앵브뇌 미리엘 씨는 일흔 다섯 살쯤 되는 노인으로, 1806년 이래 디뉴의 주교직을 맡고 있었다.”<sup>119)</sup>

그는 아름답지는 않으나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의 품모를 지닌 열 살 아래의 누이동생인 바스티느(Baptistine) 양과 성실하고 늙은 하녀이자 가정부인 마글르와르(Magloire) 부인과 함께 자신의 관사에 살고 있었다. 평상시 문도 잠그지 않고 사는 그는 디뉴 시의 주교로 임명 받은 후 그의 넓은 관사를 환자가 많아 붐비는 병원과 바뀐 쓰게 하고, 자신이 받는 봉급의 대부분을 더 많은 구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배정된 마차 순회 비용마저도 고아와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의로운 사람”(LM 7)이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뿐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루이 16세의 준시역자이며 귀족을 몰살한 살인마로 비난을 받은 G라는 국민회의 의원의 임종을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항상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좋아하여 환영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앵브뇌 각하(Monsieur Bienvenu)”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LM 15)

119) Victor Hugo(1862), *Les Misérables*. Trans. by Norman Denny, (New York: Penguin Books Ltd). 강영길 역(1994), 『레 미제라블』, 제 1권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p. 7. 이후 텍스트는 본 번역서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LM 1, 2, 3으로 표기하고 면수만 기재함.

이 주교는 신앙을 초월한 과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도한 사랑은 사람들에게 넘쳐흐르고 때로는 동물과 사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자비로웠다. 예컨대, 그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미를 보고서 “불쌍한 놈 같으니! 그것도 네 잘못은 아니다”(LM, 67)라고 말하는가 하면, 개미 한 마리를 밟지 않으려고 하다가 발목을 뻗 일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그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의 외재성에 대한 경의로 나타난다.

비앵브뤼 각하는, 신비한 문제는 그저 밖에서만 살펴볼 뿐 그것을 깊이 파헤치거나 회저어 보거나 자기의 정신을 그것으로 어지럽히는 일 없이, 그러면서도 어둠에 대한 진지한 존경을 영혼 속에 품고 있는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었다.(LM, 72)

김영철 교수는 미리엘 주교의 이러한 성품과 언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닮았던 모든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통해 ‘태연한 눈’을 갖게 된 그가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비록 자신이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환대’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배정된 모든 재정적 수단들을 타인을 위해 포기함으로써 이 작품의 주인공인 장발장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했다고 정리하고 있다.(김영철, 35-40)

시내의 모든 거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받아들여기를 거부하는 흉측한 물골의 부랑자를 아무렇지 않게 환대하는 미리엘 신부는 그에게 “당신”(LM, 93)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어 경의를 표하고,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두 개의 은촛대로 밝은 조명을 제공한다.

「당신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좋았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일이 이름을 묻지 않고, 다만 피로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볼 뿐이요. 당신이 피로움을 받고 있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잘 찾아오셨소. 내게 감사하지 마시오. 내가 내 집에 당신을 맞아들였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오. 안식처를 구하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이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나는 한낱 지나가는 사람인 당신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기는 내 집이라기보다 당신의 집이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요. 어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이름을 하나 알고 있었소.」(LM, 93)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장발장의 이름을 “형제”라고 밝힌 미리엘 주교의 이러한 파격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이며, 지극히 작은 형제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준 마지막 때에 칭찬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2. 자베르(Javert) : 율법의 인간

개와 사자 혹은 불독과 호랑이 등과 같은 동물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자베르 경위는 본시 죄수의 아들이었다. 그가 경찰이 된 것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의 사회 속에 편입되기 위한 생존의 방편이었다.

자베르는 형무소 안에서 트림프로 짐을 치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여자의 남편은 항구의 감옥

에서 징역을 사는 죄수였다. 자라남에 따라, 자베르는 자기가 사회의 밖에 있음을 깨닫고 사회 속으로 다시 되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렸다. 사회는 두 종류의 인간을 사회 밖에 내세우고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즉 사회를 공격하는 인간과 호위하는 인간이다. 그는 이 두 종류 중의 어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는 편협스럽고 고지식하고 결백한 그 어떤 본성이 자기 속에 뿌리박혀 있음을 느끼고 자기가 속해 있는 부랑자 계급에 대하여 더할 나위 없는 중요성을 품고 있었다.(LM 202)

그는 국가의 모든 권력에는 무조건적인 존경을 표현하고, 반대로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사회에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 세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경멸과 반감과 혐오를 가지고 대하는 이차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금욕주의자이고 진지하고 엄격했으나, 음울한 몽상가이며 광신자처럼 겸손하면서도 교만했다.”(LM 203) 사회라는 형식적 시스템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자베르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유일한 척도는 규범과 법률로 종합되는 형식 그 자체였다.

그의 생애는 오로지 다음의 두 마디 말로 요약된다. 「경계와 감시」. 그는 이 세상의 가장 구부러진 것 속에서 똑바로 걸어왔다. 그는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양심의 신조로 삼고, 직무 수행을 자기의 종교로 삼았다. 게다가 그는 목사 같은 탐정이었다. 그의 손에 걸린 자야말로 불행할지이다. 그는 제 아버가 감옥에서 탈옥했다면 그 아버를 체포했을 것이며 제 어머니가 죄를 지었으면 그 어머니를 고발했을 것이다. 그것도 덕성에서 얻어지는 일종의 내적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했으리라.(LM 203-4)

장발장이 우여곡절 끝에 마들렌 씨(Monsieur Madeleine)라는 이름으로 몽트뢰유 쉬르 메르(Montreuil-sur-mer) 시에 들어와 구슬 산업을 통하여 그 도시의 퇴락한 경제를 활성화 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으로 재직하게 되는 시기에, 자베르는 경위의 계급으로 치안 담당자로 부임하게 된다. 자베르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력이 베일에 싸여 알 수 없는 새 시장 마들렌 씨는 도저히 진심으로 존경할 수 없는 존재였다.

모든 시민들이 새 시장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동안 자베르의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해서 새 시장의 뒤를 따라다녔으며, 그러던 중 마차에 깔린 포슐르방(Fauchelevent)이라는 노인을 구할 때 마들렌스가 보여준 막대한 힘 때문에 그 시장이 오래된 툴롱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던 장발장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 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직공으로 일하다가 스캔들 때문에 쫓겨난 팡틴느(Fantine)가 곤경에 처하게 되자 그녀를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시장을 보며, 약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친절은 “좋지 못한 친절”(LM 248)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베르의 태도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막 2: 16)라고 예수를 비판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결국 자신을 대신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부랑자를 구하기 위해 법정에서 자신이 장발장임을 고백한 마들렌 씨를 다시 체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일종의 광채가 발생한다.

염직과 진지와 결백과 확신과 의무감 같은 것은 나쁘게 이용될 때는 끔찍한 것이 되지만 그래도 웅대함을 잃지 않는다. 인간의 양심만이 갖는 그러한 위엄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면서도 의연히 존속한다. 그것들은 착오에 빠질 수도 있다는 하나의 결점 밖에 없는 미덕이다. 흉포하기 이를 데 없는 광신자의 무자비하고도 외딴으로 달리는 회멸 속에는 비통하면서도 존경할 만한 일종의 광채가 있다. 자베르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으나, 승리를 자랑하는 모든 무지한 인간처럼 그의 포악한 행복 속에서 가없는 존재가 되

이 있었다. 선이 갖는 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그의 얼굴만큼 무섭고 또 가슴을 때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LM 338)

그러나 이처럼 득의양양하던 자베르도 1831년 7월에 발생한 혁명의 현장에서 장발장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장발장의 성심에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그가 지나왔던 가치관에 혼란을 겪게 된다.

그는 자기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어느 쪽도 똑같이 걷기는 했지만 분명히 두 갈래의 길을 보았다. 그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직선밖에 몰랐던 자베르에게는 무서운 일이었다. 더욱이 심하게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그 두 갈래의 길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이었다. 두 갈래의 직선은 서로 멀리하고 있었다. 어느 것이 참다운 길인지? 그의 위치는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LM 368)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로지 법 하나에만 의존하고 살아왔던 '실정법의 추종자'인 자베르의 눈에도 이미 장발장은 천사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신의 정의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률의 노예"(LM 372)로 전락한 자베르는 사람의 걸모습 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침착하고 정확한 필적으로 쉽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종이 위에 힘찬 펜소리를 내면서,"(LM 376) 매우 상세한 관리에 관한 각서를 써서 지서에 제출하고 세느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요컨대,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고 직무에 충실한 자베르는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던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가 갇혀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자신에게 부과함으로써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율법의 자기당착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3. 장발장: 은혜의 인간

최근에 뮤지컬 영화로 상영된 『레 미제라블』은 관객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받았는데,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뜨거운 이유는 "작품에 등장하는 '실폐한 혁명'과 '가난한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이 현재 한국의 사회상과 맞물리며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상영됐는데 유독 한국에서 분노장보다 더 큰 흥행을 거두고 있어 거꾸로 놀라고 있다"고 주장한 이어령 교수는 사회진보적인 성격의 혁명을 강조한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아닌 세상을 구원한 예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다시 봄으로써 "사랑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을 이해해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sup>120)</sup>

이 교수의 논의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 작품의 전편에 흐르는 프랑스의 비참한 현실과 그로 인한 절실한 혁명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깊은 흐름으로 존재하는 사랑, 즉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그러한 사랑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구원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양심을 회복한 인물이 바로 장발장이자다.

120) "이어령 박사 "레미제라블", 바리케이트 너머 사랑을 보라"  
[http://www.christiantoday.co.kr/template/view\\_print.html?id=262467](http://www.christiantoday.co.kr/template/view_print.html?id=262467)

배고픔에 괴로워하는 어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개를 훔친 죄로 19년간 강제노역으로 옥살이 끝에 가석방된 장발장은 출소 후 저녁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자연히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만, 그런 그를 디뉴 시의 미리엘 신부만은 그의 이름 하나밖에 모르면서 형제로 인간답게 대해주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증오만을 가득 담은 채 장발장은 자기 자신을 허물어 버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어긴 채 신부가 잠든 사이 은식기를 훔치다 발각되어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지만 신부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로 은춧대까지 선물 받으면서, 감옥에서 또 체적과 고문을 당했어야만 했던 그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증오와 미움을 씻어버리고 맑은 영혼으로 거듭난다. 결국 미리엘 주교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용서를 세상에 되돌려 주기 위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극기주의와 신성의 정점으로 도약하는 한 영혼의 숭고한 승리를 보여준다.

세상 누구보다도 억울한 시절을 보낸 그는 19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또 다시 수많은 모멸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바친 '의로운 사람'인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은 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한다.

주교는 벽난로에 가서 두 개의 은춧대를 들고 돌아와 장발장에게 주었다. 두 노부인은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주교에게 방해가 될 만한 표정 하나 짓지 않으며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장발장은 온 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다만 기계적으로 그 두 개의 촛대를 받았다.(LM 125)

이후 평생 동안 어떤 경우에도 지니고 다녔던 두 개의 은춧대는 장발장에게는 삶의 세파를 헤쳐 나가도록 돕는 등대이며 "압박한 생각과 과벌의 정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LM 126) 미리엘 신부가 지불한 몸값이었고, 그것은 곧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장발장은 이 순간 죄의 가리움을 받고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것이 곧 은혜이며, 이러한 은혜를 이해하고 수용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선을 행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간다. 김영철 교수는 이러한 장발장의 성화의 순간에는 어린 시절 신앙공동체에서 키워진 신앙의 힘과 그것을 회상시켜 준 주교의 성찬, 그리고 전에 그가 받았던 교육의 영향력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김영철 41-42)

그 후 몽트뢰이유 쉬르 메르라는 조그만 도시에 들어갔다가, 화제가 발생한 시정 청사에서 헌병대장의 아들을 구해 준 후 그 도에서 "마들렌느 아저씨"(LM 190)라고 불리우며 생활하게 된다. 모든 면에서 침체되어 있던 그 도시에 있어서 마들렌느 씨는 구세주나 다름이 없었다.

김은 구슬을 제조하는 기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마들렌느 씨는 그 도시에 공장을 세우고 "남자에게는 성실을, 여자에게는 순결을, 모든 사람에게는 성실을 요구"(LM 191)하면서 정직한 남자와 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사실 이 공장은 수익성을 위한 영리 집단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은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타난 포도원의 비유, 즉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여 돈벌이를 하게 해 준 집주인의 행위를 연상하게 한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나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택하므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 10-16)

이른 아침부터 제 삼시와 육시, 그리고 구시와 십 일 시(21)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자신의 포도원과 과 장터를 오고가며 '하루 한 테나리온'이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부근의 모든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의 행보가 소위 기술이나 경력 등의 스펙이 아닌 성실과 순결이라는 거룩한 조건만으로 공장의 직원을 채용하는 마들렌느 사장의 경영방식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 도시의 시장으로 추대된 그는 그 어떠한 훈장이나 시상 혹은 사교계의 모든 손길도 다 거부한 채 성실한 노력과 마치 "나쁜 것을 할 때 사람이 몸을 숨기듯이"(LM 196)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선행을 베풀어가면서 그 도시의 경제적 지형도를 그려갔다.

그리던 중 자신의 과거 신분을 의심하며 끈질기게 뒤쫓아 온 자베르의 고백을 들던 중 상 마티외(Champfathieu)라는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미 과거의 고통과 두려움을 덮고 승승가도를 걷고 있는 장발장에게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식이었다. 지금 까지의 모든 조심스러웠던 성공의 결과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순간에 장발장은 껌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잔 앞에서 망설이며 힘쓰고 애써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이런 모양으로 이 불행한 영혼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불운한 사나이보다 천 팔백 년이나 옛날에 인류의 모든 신성과 모든 고뇌를 한 몸에 짊어졌던 신비한 사람, 그 사람 역시 올리브 산의 나무들이 휘돌아치는 무한의 바람에 떨고 있을 동안에는 별빛 가득한 저 깊은 하늘에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두움에 넘쳐흐르는 무서운 전이 앞에 내밀어졌을 때, 그 잔을 받기를 오래 망설이지 않았던가.(LM 277)

양심의 번민에 따른 불면과 고뇌 끝에 장발장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아라스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자신이 장발장임을 증명하고 억울하게 붙잡혀 온 상 마티외를 석방하도록 했다. 마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 42)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와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양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또한 장발장은 자신의 공장 직원이었다가 창녀로 전락한 팡틴느의 딸 코제트(Cosette)를 자신의 친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에게 코제트는 단순히 친 딸 이상의 존재였다.

장발장은 내부에 숨어있는 할아버지와 아들과 오빠와 남편이 뒤섞여진 이상한 아버지, 하나의 모성에마저도 포함한 아버지, 코제트를 사랑하고 그녀를 숭배하는 아버지, 이 아이를 오로지 광명으로 삼고 집으로, 가족으로 조국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삼고 있는 아버지였다.(LM 2, 197)

이처럼 코제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장발장은 그녀가 17 세가 되자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진 것을 목격하게 된다. 코제트의 마음이 다른 사내에게 가 있고 자신은 그저 아버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속에 "증오"(LM 2, 198)라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코제트의 연인을 자신의 연적으로 여긴 그는 공화파인 마리우스가 샹브르리의 거리에서 정부군과 대치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르지만 그것도 잠깐, 다시 양심의 번민을 느낀 그는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121)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 시에 이르는 한나절의 시간

위험천만한 마리케이트로 향하게 된다.

이후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결혼을 하게되고, 장발장은 아버지와 장인의 신분으로 함께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가식방 중 탈옥수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서 이중적인 생활로 표면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것을 그의 양심이 다시 문제를 삼는다. 마침내 장발장은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외롭고 병든 노인으로 여생을 맞기로 한다. 이러한 고백의 동기를 묻는 마리우스에게 장발장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긴 그래. 어떤 동기로 이 죄수가 『나는 죄수요』 하고 말하려 왔는가 그거군요. 그렇소! 좀 색다른 동기로, 정직한 마음에서요. 불행하게도 내 마음 속에는 한 가닥의 줄이 숨어 있어 그것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소. 더구나 나이가 들면 그 실은 점점 더 질겨지오. 주위의 생활이 전부 허물어져 가는데도 그 실만은 저항하고 있소.(LM 3, 446)

장발장이 번번이 편안한 거짓과 불완전 진실 사이에서 마음의 번민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진실 쪽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한 가닥의 줄은 먼저 미리엘 주교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내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그 선물을 양심의 율법으로 삼아 한 평생을 의로움을 따라 베푸는 삶을 살아온 은혜의 인간 장발장의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이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온 장발장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극적인 반전이 나타난다. 그를 모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던 테나르디에(Thenardier)라는 사악한 인간에 의해 장발장의 노년의 은거지가 밝혀지고, 그간의 모든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수정된 상태에서 장발장은 다시 코제트의 아버지로, 마리우스의 장인으로 되돌아와 아름다운 죽음을 맞게 된다.

마리우스는 미친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저 장발장 속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어습푸레한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 없었던 덕의 권화가 송엽하고 온화한, 광대한 가운데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죄수가 그리스도로 변모해 온 것이다. 마리우스는 그 기적에 눈이 아찔해졌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으나 그것은 위대해 보였다.(LM 3, 507)

"만사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에 대해 부당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LM 3, p. 515)는 신념으로 평생 동안 억울한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위해 항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숨기고 타인의 성공을 빌어주었던 장발장에게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 9)는 바울의 충고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함께 곧장 장발장이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죽어가고 있던 폼프 아르메 거리 7번지(Number Seven, Rue de l'Homme-Armé)를 찾아간다. 두 사람의 극적인 방문은 무기력으로 죽어가던 장발장에게는 아름다운 임종을 맞을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그리고 코제트와 마리우스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장발장은 그 힘과 용기와 희망의 근원이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이후의 삶 속에서도 바로 벽난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촛대에 있다는 사실을 유언처럼 남긴다.

코제트, 벽난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촛대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내게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과도 같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과도 같다. 초를 쫓으면 그것은 성당의 큰 촛불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내게 그것을 주신 분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만족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나로서

할 수 있는 때까지의 일을 해왔다. 너희들, 너희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한쪽 구석에 장소를 표시할 만한 돌 밑에다 나를 묻어다오. 이것은 내 뜻이다. 돌에는 이름을 새기지 말도록. 만약 코제트가 이따금이라도 와주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겠다. 당신도 와주오, 폼페르시군. 내가 늘 당신을 사랑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소. 제발 그 점을 용서해 주시오.(LM 3. 517)

장발장은 억울하고 고단했던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십자가와도 같은 그 은촛대와 그 속에 담긴 은혜의 함의를 통해 세상의 율법이 주는 정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한 사랑에 근거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삶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IV. 결론

인간의 본성을 다룬 인성론의 입장에서 장발장의 위대한 삶과 임종은 중국 선진유가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인 맹자(孟子)의 성선설을 연상시킨다. 분시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선하다고 강조한 그는 물질적 궁핍으로 열악해진 환경 속에서는 그 선한 성품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sup>22)</sup>고 주장하고, 인간이 예초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성품을 존양확충 시키기 위해서는 “반구제기(反求諸己)”<sup>23)</sup>의 태도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 『레 미제라블』의 배경이 된 대혁명 당시 프랑스는 국고가 바닥난 상황이었고, 각종 자연재해와 재정난 및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하여 민중의 삶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고갈되어 가고 있었으며, 거기다가 귀족과 성직자들로 구성된 구제체 옹호자들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온갖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며 결코 낙심치 않는 장발장의 소설 스토리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 용서의 고귀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 주기 위해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는 한 영혼의 승고한 승리를 보여준다. 즉, 천부의 성품까지 지키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성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장발장의 모습은 “내 한 몸이 바르면 천하가 돌아온다”는 ‘반구제기’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레 미제라블』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란 의미뿐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하층 계급, 그리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회제도에 저항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킬으로써, 빅토르 위고 자신의 생애와 사회관이 반영된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공화주의에 동조하여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는 ‘자유, 평등, 공화주의 체제’를 위한 역사의 현장 속에 직접 뛰어들게 되고,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제정을 수립하자, 시인으로서 민중의 소리이자 그들의 인도자와 대변자가 되어 저항운동을 하다 추방돼 19년 간 망명생활을 하게 된다.

122) 孟子曰：「富歲，子弟多賴；凶歲，子弟多暴，非天之降才爾殊也，其所以陷溺其心者然。」<sup>22)</sup>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대개 착하고,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대개 포악하다. 이는 하늘이 그들에게 내린 재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흉년이 되면 먹을 것이 모자라 사람의 본성이 욕망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맹자』, 『고자 장구』 상, p. 404.

123) 孟子曰：「愛人不親，反其仁；治人不治，反其智；禮人不答，反其敬。行有不得者，皆反求諸己。其身正而天下歸之。」<sup>23)</sup>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나 친함이 없으며 나의 어짊을 반성할 것이요, 다스리려고 하나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의 지혜를 반성할 것이며, 예를 갖추어 사람을 대하나 답이 없으면 나의 공경함을 반성할 것이니라. 행함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을 때는 항상 자기를 돌아볼 것이니 내 한 몸이 바르면 천하가 돌아오느니라.” 『맹자』, 『이루 장구』 상, 제 4장, p. 249.

스스로가 권력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된 위고는 피로써 자유를 쟁취한 프랑스 대혁명 이래 민중들의 삶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탄식하며 『레 미제라블』이라는 대작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은 민중들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함께 사회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소설로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출발한 자베르와 장발장의 정반대의 인생의 결말이 아닌가 싶다. 즉, 둘 중 한 사람인 자베르 경우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율법’에 해당하는 실정법을 택한 후 타락한 사회의 주요한 축으로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또한 자신이 옹호한 그 기득권에 기생하면서 수많은 약자들을 핍박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의 알팍한 정의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실체인 은혜의 삶을 만나 자가당착의 딜레마에 시달리게 되고, 마침내는 편협한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하고 만다.

반면,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된 장발장의 사회생활은 ‘타인’을 위한 삶이었다. 배를 굶고 있는 조카들에게 주려고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가게 된 그는 탈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9년 간 수감되었다. 억울한 옥살이와 세상의 편견으로 인하여 자칫 더 심한 탈선의 결과를 낼 수도 있었으나 불문곡직하고 잠자리와 음식을 내어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도둑질마저 선의로 덮어주는 미리엘 신부의 은혜에 감동하여 그의 삶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다.

요컨대, 프랑스 역사상 최대 변혁의 시기에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격랑과 혁명의 중심에서 시작된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혁명의 진정한 성공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바리케이트도, 율법과 규칙의 잣대로 사람을 규정하는 엄혹한 율법주의도 아닌, 인간을 향해 무한히 열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나의 삶부터 바꾸어나가는 한 사람의 겸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한 울림으로 전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나학진 (2005). 『기독교 윤리학』. 서울: 강남대학교 출판부.

황송문 (1995). “宗敎理念과 文學의 藝術性.” 『선문논총』 제 5호, 25-55.

C. F. W. 윌터 지/ 지원용 역편 (1993). 『율법과 복음』. 서울: 도서출판 키클디아.

Bakhtin, Mikhail (1984).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trans. Caryl Emers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영철 (2002). “소설 『레 미제라블』을 읽고 나서: 한 교육학적 독후감.” 『교육인류학연구』 5(2). 한국 교육인류학회, 31-54.

Bromber, Victor (1988). “*Les Miserables* Salvation from Below,” in *Victor Hugo*,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5-236.

맹자/ 범선균 역해 (1975). 『孟子』. 서울: 해인출판사.

[http://nosamo.org/local/flist01\\_view.asp?PNUMBER=11465&SNUMBER=83&TNUMBER=717](http://nosamo.org/local/flist01_view.asp?PNUMBER=11465&SNUMBER=83&TNUMBER=717) (검색일 2013. 4. 15)

노사모 게시판. 2006년07월 10일 “노동자에게 사랑받는 문학의 거장: 빅토르 위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21017581&ccode=96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21017581&ccode=960100) (검색일 2013. 4. 15)

경향신문. 2013년 1월 22일. “레 미제라블 역사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template/view\\_print.html?id=262467](http://www.christiantoday.co.kr/template/view_print.html?id=262467) (검색일 2013. 4. 15)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3월 29일. “이어령 박사 ‘레미제라블’, 바리케이트 너머 사랑을 보라”